

전남

20억 공영주차장 하루 수입 7600원

순천시 주차난 덜고 시장 활성화 위해 조성

유료화로 이용객 줄고 골목길 교통체증 유발

순천시가 수습위원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개장 2개월이 지나도록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다 이용객의 외면으로 운영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역전시장 주차난을 덜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사업비 19억9600만원을 투입해 역전일대 2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역전시장 제1주차장은 부지 1164

m 규모로 36대를, 제2주차장은 983m²로 38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지난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무료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된 유료화 이후 주차장 이용객이 갑자기 빠져나가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2개월간의 출입차량 집계결과 현재까지 이용차량은 총 2000여대로 하루 평균 30여 대에 머물고 이 가운데 30분을 초과한 유료이용객은 하루 평

군 10여 대에 그치고 있다.

온누리(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차주에는 1만원당 1시간 무료주차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입자가 적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주차장 운영수입도 2개월간 46만원으로 1일당 주차수입이 평균 76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차장 관리요원의 2개월치 보수는 470여만원이 지급돼 당초 취지뿐 아니라 운영실적도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용객이 저조한 원인으로 ▲주차장 홍보부족 ▲경직된 요금체계 ▲부적절한 부지선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근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장시간 소핑에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손님을 끌어야 할 재래시장이 30분 초과시 주차비를 받고 있어 이용객과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주차장 유료화 이후 공영주차장을 외면한 손님들의 인근도로 주·정차로 인한 골목길 교통체증 유발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다수 시장상인과 이용객들은 “주차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장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무료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애초 취지는 수익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였고 또 무료개방시 상인들이 이용차량이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며 “당분간 운영을 해본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ja@



도농교류의 장 '드림카페' 장성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내에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를 위한 도시 소비자의 방 '드림카페'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군은 매주 목요일 '드림카페'를 찾는 도시인들에게 따뜻한 차와 함께 장성군의 농산물과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파프리카, 당분간 내수판매 올인

병해 등 생산량 급감 가격까지 급등... 수출보다 경쟁력 앞서

최근 일조량부족과 병해 등 기상이 변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출농가가 파프리카 등을 해외수출하는 대신 국내에 판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파프리카 가격이 지난 3월말 5kg 한 상자당 3만3000~3만3800원에 어 4월말 5만2000~7만1000원 경증 뛰었고, 양파도 kg당 3월말 830~930원 하던 것이 한달새 1620~1650원으로 급등했다.

이러한 신선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상승은 최근 불철 지속된 일조량 부족과 이상기온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출가격보다 내수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파프리카·대파·마늘·홍·호박고구마·팽이버섯 등 수출농가에서 수출을 일시 미루고 내수 판매로 돌리는 경향이 속출하고 있다.

A유통센터의 경우 3월초부터 매달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분의 파프리카 물량(20t)을 일본으로 수출해오다가 4월말 3주전부터 일시 중단하고 내수로 돌렸다.

B수출대행 업체도 일본업체와 마늘종 500t을 kg당 1200원에 수출하기로 했으나 국내가격이 2400~2800원으로 뛰며 수출을 중단했다.

한 유통센터 대표는 “일본과의 수출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으로 '딜레이' 한 것”이라며 “수출가격보다 국내가격이 높아져 시장논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내 농가들의 일본 등 농산물 수출이 지연됨에 따라 농가를 현장 방문해 수출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등 농산물 가격급등에 따른 수출 농가 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농가와 외국 바이어 사이에 맺은 농산물 수출 계약을 어기게 되면 다음 수출계약 체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힘을 모아 바이어를 발굴한만큼 생산자와 바이어간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희기자 song@

'정남진 도서관' 문열어

장흥군 31억 들여 건립... 디지털 세미나실 등 갖춰

장흥군민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될 '정남진 도서관'(사진)이 4일 문을 연다.

장흥군은 사업비 31억7900만여원을 투입해 장흥읍 건산리에 지하 1층·지상 2층에 전체면적 1455m² 규모의 정남진 도서관을 건립했다.

정남진 도서관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을 비롯해 사무실·보존서고 등이 들어서며, 2층에는 종합자료실·일반 열람실·디지털 자료실·세

미나실 등을 갖췄다.

군은 정남진 도서관의 1층은 영·유아 어린이 열람실, 2층은 청·장년층 이용실로 특화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영·유아 어린이 도서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장년층 열람실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양식해삼' 기술 개발 나선다

남서해수산업, 종묘 생산업체와 협약

민·관이 공동으로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해삼을 중국 전략수출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식기술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국립 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업연구소(소장 김이운)는 최근 해삼 종묘생산업체인 명천수산(대표 김재경)과 해삼양식 초기 산업화를 위한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해삼 생산량은 지난 2002년 833t에 불과했으나 방류사업 확대 등으로 지난해에는 2789t을 생산하

는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중국의 연간 생산량(20만t)의 1.5%에 불과해 양식기술 개발로 생산량 증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남서해수산업연구소는 올해부터 3년간 ▲양식종묘 대량 중간육성 ▲양식 기술 개발 ▲해삼사료 개발 등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는 등 해삼양식 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林道서 산악레포츠 즐긴다

자전거·패러글라이딩 등 다용도 길로

임도(林道)가 나무벌목과 관리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에서 산악자전거와 패러글라이딩 등 산악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용도 길로 변모한다.

전남도는 2011년까지 2015년까지 5년간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설치와 다기능 레포츠 임도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간선임도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산림의 경영·관리·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나 지금까지 시설된 임도 노선

중 완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조사된 대상지에 대해 현지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설치를 위해 대학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을 운영해 임도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과 신기술 도입·공법개발 등으로 재해에 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

낙안민속축제 7일 개막

9일까지 가야금 병창 대회 등 다채

'제17회 낙안 민속문화축제'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순천 낙안읍성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국악 한마당·전통 혼례식·낙안 두레놀이 등 옛 생황 풍습을 재현하고 ▲임경업군수 부임재현 행사 ▲수문장 교대의식 ▲도화서 연흥 등 전통 민속축제로

치러진다.

또 퓨전국악·평양예술단 공연과 짚물공예·김장시연·큰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9일에는 가야금 병창 최고봉 오택서 명인을 추모하는 '제3회 전국 가야금 병창 경연대회'가 열린다.

인재 발굴과 가야금 병창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초·중·고·일반·신인부로 나눠 진행된다.

한편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22만3108m²에 객사(客舍)와 동헌(東軒)등 관아(官衙)를 비롯해 초가와 돌담·싸리문 등 한국의 전통적인 시골마을의 정취가 옛 모습대로 보존돼 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ja@

인생열쇠
☎ 062-383-8982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고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야남,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대인통신팔부동산
☎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태양광부지 구함●

식당, 전원주택.

- 광안구 선안동 호반대영 3,458㎡ 3.3㎡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용, 조망양호
- 전원주택, 종교시설용도
- 광안구 신월동 보훈병원앞 9,722㎡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 농장, 주말주택.
- 나주 세지면 송제리 7,385㎡ 3.3㎡당 48,000원, 보전관리지역.
- 나주 왕곡면 소재지 부근 7,410㎡ 3.3㎡당 35,000원, 계획관리지역.
- 나주 병행면 각동리14,093㎡ 3.3㎡당 48,000원, 계획,생산관리지역.
- 영암 군서 양정리 19,098㎡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 영암 덕진 영보리 14,414㎡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식당, 사무.

- 서구 마덕동 서남대병원 앞 대지 1,337㎡, 연면적(2층)400.2㎡, 매매가 11억.
- 서구 능성동 구 한전앞 대지 719.7㎡, 연면적(3층) 328.9㎡, 매매가 11억.

생산녹지

- 서구 마덕동 광송간 도로변(군사보호지역)5,243㎡, 2차선 도로 진입가능, 매매가 3.3㎡당 115만원.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김영희
☎062)364-8700
H. P.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평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안구	신안동	해상공도관리	109,933	198천	3천	
	월곡동	모리	118,936	192천	8천	
	월곡동	영지	158,448	195천	3천	
동구	우산동	현대	109,533	191천	8천	
	신안동	한동아파트	172,652	291천	194천	
	신안동	한동아파트	224,688	395천	224천	
서구	월곡동	현대	109,933	195천	192천	
	월곡동	이피파크	192,568	495천	391천	
	월곡동	롯데	172,652	291천	192천	

지역	소재지	면적/평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안구	신안동	해상공도관리	109,933	198천	3천	
	월곡동	모리	118,936	192천	8천	
	월곡동	영지	158,448	195천	3천	

지역	소재지	면적/평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안구	신안동	해상공도관리	109,933	198천	3천	
	월곡동	모리	118,936	192천	8천	
	월곡동	영지	158,448	195천	3천	

• 위치: 법원입찰장 건너편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입선)·명도(이사)